

# 10월호

## Contents

강북구 발달장애인가립생활지원 조례제정 공청회 ‘열린 세상’ 개최	2
전동휠체어 활용교육 진행을 통해.....	4
스포츠 농구관람 ‘인손은 커다란 편’	6
9차 보치아 자조모임을 진행을 통해.....	8
12차 단기체임용 프로그램 진행하며.....	10
“우리 동네 빵집터”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11
관악CEIL 동료상담보수교육에 참가하며.....	13
(관림) 노년기 장애인의 우울증	16
이달의 정보	18
이달의 시	19
강북장애인가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0
광고	22



# 강북구 발달장애인지립생활지원 조례제정 공청회 ‘열린 세상’ 개최

허효숙

2017년 10월 25일(수) 14시 ~ 17시, 강북센터 교육실(수유역 가든타워 1707호)에서 강북구 발달장애인지립생활지원 조례제정 공청회 ‘열린 세상’ 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발달장애인지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치법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며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안을 발표하고 장애인 학부모, 구의원, 비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간의 토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조례 통과를 목표로 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강북센터 교육실의 넓지 않은 공간에 예상보다 많은 참여자가 모였다. ‘공청회의 취지와 목적을 아시기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앞섰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강북장애인지립생활센터에서는 강북구 발달장애인지립생활지원 조례제정 TF팀을 구성, 1·2차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여 조례 가안을

완성하였다.

TF팀 구성은 장애인 학부모, 현직 구의원, 의료진, 장애인 연맹, IL센터 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7년 8월 29일, 강북센터 교육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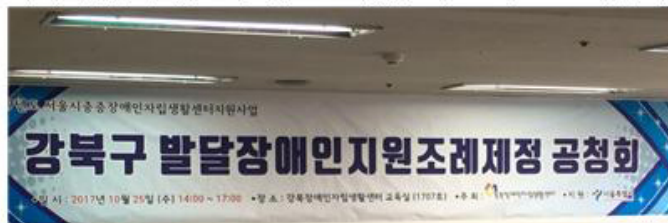


1차 회의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의, 조례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2차 회의 역시 17년 9월 6일 강북센터 교육실에서 진행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들을 비교 검토 후 수정을 통하여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안을 완성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영위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 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하도록,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함인 것이다.

TF팀이 만든 조례 가안은 완벽하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라 생각한다. 많은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수렴하여 조례를 완성하고자 한다. 즉, 발달장애인 지원 방향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주요 정책과제 제안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성황리에 무사히 끝났으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많은 이들의 바램을 모아 조례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참고자료-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우리나라의 조례 제정의 과정에는 미국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가 없고 중앙통제만이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移送)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修正) 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례 [條例]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 전동휠체어 활용교육 진행을 통해.....

문지수



자립생활기술교육의 마지막 교육인 전동휠체어 활용교육이 9월 29일 금요일, 강북센터 교육실인 1707호에서 14:00 ~ 18:00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전동휠체어 활용교육의 강사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보조기기공학센터장이신 최동일 강사님이 전동휠체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주셨다.

“우리의 휠체어는 어느 시대부터 만들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언제 만들어졌을까?”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잘 모르겠다-..”

이렇듯 강사님의 질문에 참여자분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궁금해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힘입어 강사님께서도 휠체어에 대한 기원을 친절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상세히 알려주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안전 교육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주목해주세요.”

강사님께서 준비한 영상은 전동휠체어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영상을 보여주었다.(영상 출처 : 맨\* 블\* 박\* X 파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자동차와 오토바이 추돌사고가 있



듯이 전동휠체어와도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보통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추돌사고인 경우는 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대 차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와 전동휠체어의 추돌사고는 차 대 차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일반적인 생각은 ‘전동휠체어도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로 간주하지 않을까?’ 라고.....

“자동차와 전동휠체어의 추돌사고는 차대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 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보조 보장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추돌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도블록의 울퉁불퉁하고 턱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 활용교육의 마지막 시간에는 전동휠체어 관련 부품과 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 그 중 배터리에 관한 내용을 말하자면 “1번 충전과 1번 방전을 1사이클이며 평균 400사이클을 사용한다면 교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 교체 시 제조년월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전동휠체어 부품 중에 고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지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만족함을 느꼈다.

# 스포츠 농구관람

## ‘원손은 거들 뿐’

이동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 진행되는 자립생활기술실천 스포츠 농구관람이 2017년 10월 17일 잠실실내체육관 18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농구 경기는 삼성 vs LG팀으로 12명의 참여자와 스텝들은 잠실실내 체육관 벤치에 모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약속한 18시 30분 보다 빨리 오셔서 강북센터 스텝들이 준비한 고통민 김밥을 참여자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안00 씨, 정00 씨가 정말 맛있게 드시며, 너무 좋아하셨고 모든 참여자분들이 김밥이 너무 맛이 있다고 한마디씩 해주셔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농구 경기 이야기를 하며 경기관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누가 이길까에 대한 궁금증과 서로 간에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담소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00 씨는 LG 농구팬으로써 삼성 팬인 이00 씨와 서로 누가 이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정00씨는 SK농구팬이라 이번 스포츠 경기 관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은 자리에 앉아 삼성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선수들이 입장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참여자 분들 사진 찍기만 하면 브이를 하며 귀여운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추00 씨 우리 안00 씨도 카메라 보며 브이 한번 해주세요~

우리 활동보조인분들도 스포츠 농구경기를 처음 관람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지 경기 시작 전 몸을 풀고 있는 맛있는 농구선수들 모습이 참여자분들은

그저 신기하신가 보네요.

너무 많은 눈으로 관람하셔서 강북센터 스태프들은 너무 뿌듯했습니다.

경기 쉬는 시간마다 치어리더 응원 특히 피자 이벤트 음료 이벤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올해 10월 14일 첫 삼성 홈구장 경기가 뜨거운 응원 속에서 시작하며 경기가 시작되어 참여자들이 삼성을 힘차게 응원하였으나 아쉽게 졌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분들은 삼성농구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다.



이번 스포츠 농구관람은 참여자분들이 신나고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다음 스포츠 경기는 언제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시며 밝은 미소로 귀갓길을 향하셨습니다.



# 9차 보치아 자조모임을 진행을 통해.....

주영경

10월 21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강당에서 보치아 자조모임을 진행하였다. 벌써 보치아 자조모임이 9회 차로 회원들 간에도 친밀도가 높아져 한층 더 화기애애한 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보치아 자조모임은 단기체험홍 진행과 겹쳐 단기체험홍 입주자이신 이○○씨도 함께 참여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 분은 바로!!!

보치아 자조모임의 회장이신 김○○ 선생님과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미리 와 보치아 연습을 하고 계셨다. 서○○ 선생님은 음악감상을 하고 계셨고, 신○○ 선생님과 활동보조 선생님은 김○○ 선생님의 보치아연습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오~!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영경쌤과 지수쌤이다!”

“안녕하세요~.”

잠시 후 한, 두 분씩 회원님들께서 오시어 청과 홍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시작하였고, 강북센터 스텝인 문지수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보치아 경기에 참여하였다.

보치아는 다 아시다시피 표적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수를 획득 할 수 있





는 스포츠이다. 하지만, 보치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표적구 가까이 공을 밀착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문지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당황한 듯 말했다.

“표적구가...꽤 멀리 있네요?”

이어 보치아 자조모임의 회장이신 김○○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다.

“한번 세계 (공을) 굴려보세요.”

김○○ 선생님, 이○○씨, 문지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청팀, 신○○ 선생님, 서○○ 선생님, 이○○ 선생님은 홍팀으로 전반전 경기에서는 청팀이 이기고, 후반전 경기는 홍팀이 이긴 상태로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청팀이 이겼다.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서로 응원하며 보치아 경기를 하고나니 어느새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였다. 복지관 내 지하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씨의 생일 케익의 불을 붙이며 하루 늦은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스텝과 보치아 회원님들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소릴 들은 ○○씨는 굉장히 좋아했다.

맛난 도시락을 먹고 케익도 먹으면서 즐겁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속으로 흐뭇했다.

회원님들은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툼툼랄라~♪♪ 즐겁게 자유로이 귀가하시며, 다음 달 보치아 모임을 기약하였다.



# 12차 단기체험홈 프로그램 진행하며.....

문지수



10월 20일 금요일, 주몽재활원 원생인 이○○씨가 이번에도 2박 3일 동안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단기체험홈에 입소하였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와요.”

단기체험홈에 처음 입소하였을 때보다 이○○씨의 짐의 양이 줄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은 짐이 적어보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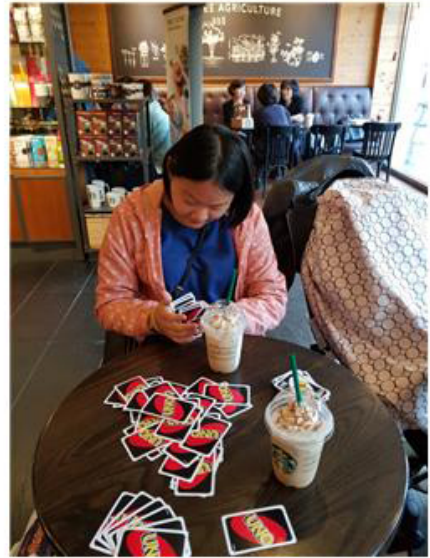
“네! 저 육군 훈련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짐이 적어요.”

늘 그러하듯 입소하는 날에는 이○○씨가 2박 3일 입주기간 동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지 등을 기록하는 자립생활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자립생활계획서를 작성하며 이○○씨는 육군 훈련소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물관처럼 전시물을 관람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총을 쏘아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 총을 실제로 만져보고 쏘아보니 놀랍고 신기했다고 한다.

10월 20일 금요일은 본인의 생일이므로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씨는 계획 변경 시 연락은 주인 하지만 나는 단기체험홈 담당자로서 ○○씨가 늦은 밤까지 체험홈에 들어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라는 당부에 당부를 하였다.



생일을 맞이한 ○○씨는 지인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조촐한 생일파티를 하며 마지막으로 노래방까지 풀코스로 스케줄을 마쳤다.



다음날인 토요일(21일)에는 보치아 자조모임에 영경 주임님과 스템으로 참여하게 되어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씨랑 수유역 3번 출구에서 만났다.

토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유난히 장애인 콜 택시가 잡히질 않아서 우리는 결국 일반 택시를 타고 보치아 자조모임의 장소인 뇌성마비복지관으로 출발하였다.

뇌성마비복지관 강당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몇몇 회원 분들이 미리 와서 연습 경기를 하고 계셨다. 서○○ 회원님이 틀어준 음악을 들으며 오랜만에 뽀는 회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보치아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씨는 보치아 경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였으며, ○○씨가 전날에 받은 생일케익을 가져와 보치아 자조모임 회원분들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보치아 회원님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 이○○씨는 직접 케익 잘라서 회원분들께 정성스레 직접 갖다드리기도 하였다.



○○씨는 그렇게 보치아 자조모임 회원분들과 자유로이 어울리며 대인관계 형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었다.

교회를 다니는 ○○씨는 예배 준비를 위해 일요일(22일)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단기체험홍을 정리한 후, 무사히 퇴소하였다.

# ‘우리 동네 빵꿈터’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주영경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진행되는 ‘우리 동네 빵꿈터’ 이웃 나눔 행사는 사업 참여자 및 오현초 어린이 나누미 봉사단이 함께 쿠키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강북센터와 복지관이 연대하여 2017년 10월 10일(화) 17:00 ~ 18:00 강북센터 교육실(1707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끝

나고 바로 다음 날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많은 강북센터 이용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나눔 행사를 위해 일찍부터 쿠키를 만들고 포장까지 완성하여 센터에 도착한 아이들 모습이 밝아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취지를 참여자분들에게 전달한 뒤,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초코쿠키를 막상 전해주려니 부끄러운지 쭈뼛쭈뼛하는 아이들 모습도 보이고~ 받은 쿠키를 맛있게 시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쿠키하나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나요?

다시 한 번,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님, 어르신, 오현초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를 전달하는 훈훈한 모습이 담긴 사진 감상해보세요^^

# 관악CIL 동료상담보수교육에 참가하며 .....

전난희



동료상담가로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하는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10월 19일 1·2교시에 진행하였던 김명희 코칭강사가 진행한 '개별상담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술 익히기' 강의는 \* 대화는 자기의 습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음

- \* 상담 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고 상담의 기술이 늘 훈련되어 있어야 함
- \* 내담자에 대한 권리, 이해, 보호 등을 내담자에게 공식적인 상담임을 상기시켜주고, 비밀보장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켜 줌 (상담에 대한 윤리)
- \* 비밀보장에 있어 내담자와 상담사의 이중(개인)적인 관계를 피하여야 함
- \* 상담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인간존중임
- \* 상담에 대한 열의와 다양한 경험과 정보들을 수집과 정리를 해두고 상담 시 활용할 줄 알아야 함
- \* 상담사 본인의 소진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하고, 소진을 막기 위해 슈퍼바이저를 반드시 두어야 함



\*내담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불안과 침묵을 잘 받아 들어라, 서둘러서 도움을 주고자 하지 마라, 성급하게 상담의 효과를 기대하지 마라, 내담자의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마라, 하나의 이론만으로 접근하지 마라,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아라 등이

있음

\*\*상담사는 지식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역할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역할도 아님. 상담사는 내담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주어야 함



3·4교시에 진행하였던 도봉구 노적IL 류나연 소장이 진행한 'ILS(개별 자립생활지원)의 진행'의 강의는 ILP와 ILS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ILS의 원칙, 특징 등에 대한 내용과 ILS지원과정 및 초기상담지의 작성내용, 그리고 ILS결정

회의에 들어갈 내용, 목표설정계획서, 사례회의록, 수행계획서와 보고서, 종결평가 회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월 20일 1·2교시에 진행하였던 장애인아카데미 인권교육 백미옥 위촉강사가 진행한 '발달장애인 동료상담' 강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동료상담이 필요할 예를 들어 그림카드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소통이 필요하고 사회통념적인 부분을 끝임 없이 주입시켜 주어야 하고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발달장애인

들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3·4교시에 진행하였던 일산 IL 안미선 소장이 진행한 '동료상담 관련 서식 활용법' 강의는 초기 상담지 및 동료상담 일지를 직접 작성해 보고, 동료상담 회의록과 서비스 의뢰 신청서, 그리고 동료상담 종결보고서 등의 서식 작성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어적인 소통이 불가능 할 때에는 비언어적인 효소만으로도 동료상담일지의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이틀간 진행되었던 '관악IL센터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고, 나는 동료상담가로서의 자질이 몇 점이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이 글을 마친다.



# 노년기 장애인의 우울증

이동현

일반적으로 장애 노인은 60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노령자를 말한다. 노년기 장애인에는 두 분류로 나뉘는데 각 분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인성 장애 - 나이가 들어갈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저하로 인해 노인이 되어서 장애를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하며 특성으로는 ①복잡한 장애를 갖고 있다, ②시각, 청각, 신체적인 장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 ③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④장애문화 & 같은 장애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 시 하지 않는다, ⑤장애수용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 급여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 노령화된 장애인 - 출산 전, 출산 시에 장애나 중도장애 등으로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현재 노령에 이른 경우는 ①가족과 연락두절이나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독거생활 유지해온 경우가 많다, ②생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대부분이고, ③기존의 장애에 노환으로 장애가 추가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속적인 의료지원 필요, ④시설생활이나 폐쇄적인 생활로 인해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사회경험이 부족하지만, 장애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기 보다는 노년기 이전의 삶을 잘 유지하며 장애수용과 적응력은 더 높다.

노인들에서 흔한 정신장애로는 ①우울증 ②치매 : 알츠하이머 병, 혈관성 치매 ③섬망 ④정신병 및 망상장애 ⑤불안장애 ⑥신체화장애 및 건강염려증 ⑦수면 장애 (불면증) 등이 있다.

여기서 우울증과 치매를 감별법을 알아보면 오른쪽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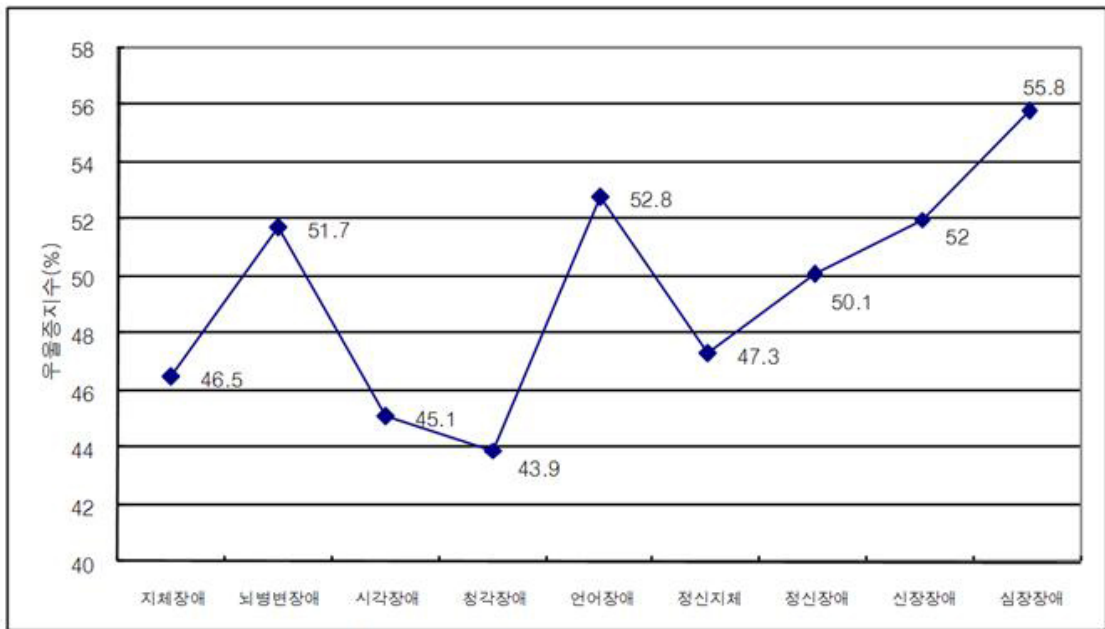
임상양상의 특징	치매	우울증
발병양상	서서히 진행하고 불명확함	급작스럽고 명확함
선행되는 문제점	기억장애	기분장애
지속기간	장기간 지속	단기간 지속
기분	변화무쌍한 기분과 행동	비교적 일관된 우울
인지기능장애	비교적 일관됨 (최근 사실에 대한 기억능력 등)	시시각각 변화를 보임 (어려운 과제수행이 힘들)
인지장애의 호소	장애를 감추려고 함	장애를 부풀려 호소함
정신상태 검사상의 특징	근접한 오답 작화증, 보속증	모른다 하면서 검사를 포기함
주의력과 집중능력	불완전함	비교적 잘 보존됨
정신질환의 병력	흔하지 않음	흔함

슬픈 감정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으며 활동 수준이 떨어지고 비관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사고가 평배하여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어둡게 보고 사소한 일에도 의사 결정을 잘못하여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노화와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리적, 심



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우울경향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채 무능감, 고립감, 허무감, 죄책감, 자살충동 등에 사로잡히는 일종의 정신질환(우울증, 울병)이다. 만성질환자의 40-60% 정도가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은 누구나 우울증 예비군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노인의 경우 비장애 노인에 비해 의존성의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장애로 인해 우울의 위험이 높은 대상이 될 수 있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우울관리와 예방적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Zung의 우울증 선별도구(Self-Rating Depression Scale)

척도 점수가 50점을 넘으면 우울증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 노인 장애인 대책 없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 확산 우려

노인과 장애인이 정신 건강 면에서 우울히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유병률이 10% 정도인 데 비해 빈도가 지나치게 높고(많은 시간우울+항상 우울=22.7%+51.6=74.3), 그 정도가(자살충동 가끔+많은 시간+항상=44.2+21.3+3.6=69.1%) 심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노인층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 역동적으로 우울증은 상실을 당한 인간에게서 나타난다. 주변인의 상실, 사랑·명예·재산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 상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태이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 신체의 일부를 영구

손상당했다는 것, 나이가 들고 젊음을 잃었다는 것 등은 모든 전형적인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내용은 그러한 우울의 빈도(74.3%)와 정도(69.1%)가 예상을 초월하여 높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있는 상실의 의미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 환경이 이들이 우울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장애를 주고 있거나 노인이나 장애우이라는 사실 자체로 사회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많아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의 치료에는 ·역동적 정신 치료 ·통찰 정신 치료 ·지지적 정신 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우울증환자 가족의 대처 ·지역사회 서비스 폭 넓은 이용 등이 있다.

장애노인에 대한 복지적 함의에는 첫째, 장애노인들의 우울 수준이 10명 중 7-8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여건들도 더 열악하므로 노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장애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노인의 경제적 문제는 우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므로 장애노인 복지대책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장애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노인복지서비스 실천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 및 생활환경에서의 장애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안에는 ①노인생활정보 특히 여가활동 방안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중재하고 소개하며 참가. 취미,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며 연대적인 교우관계를 형성과 ②PC교육이나 정보화 교육 및 서예교실 등 다양하고 구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③문화생활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노인의 자활능력을 향상. ④사회 복지사와 가정봉사원을 통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별성에 맞는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⑤가족관계간의 중재와 조력을 구하고 그 역할을 교육하고 의료, 교육, 레크리에이션, 체육 등의 과한 자원 활동을 유도·권장한다.

참고문헌.

노년기 장애인의 우울증

권오균 (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이중섭 (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이달의 정보

## 이달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 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아울러, 지정기준과 환자구성 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해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에 의하면 그동안 급성기 병원에서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와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792>

## 건강기능식품 섭취 피해발생시 위생검사 요청할 수 있어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피해를 보면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

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다.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 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kbj.or.kr/sub\\_read.html?u\\_id=24197&section=sc4&section2=](http://www.kbj.or.kr/sub_read.html?u_id=24197&section=sc4&section2=)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정보 한번에 ‘쑥~’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전용 홈페이지’ ([goods.koddi.or.kr](http://goods.koddi.or.kr))가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홍)은 지난 5일 중증장애인생산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제도안내, 신청안내, 정보마당 등의 메뉴로 구성됐으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우선구매제도, 장애인생산물품인증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돼 신청접수 결과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우선구매시설 지정 및 장애인생산물품인증심사 관련 온라인 접수 메뉴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생산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시설 지정현황과 장애인생산물품인증현황 메뉴도 별도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교육자료, 관련 법령, 통계자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물품도 소개돼 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물품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총 구매 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3&NewsCode=000320110706101704031250>

# 숨은 장점 찾기

이진이

성격은 급하지만

그 급한 성격이 추진력이 되어주어 감사하고

긍정이 모자라서 부정적인 성격이지만

그 부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있어 감사하고

상처를 잘 받지만

그로 인해 남이 받을 상처를 잘 알기에

늘 조심하고 배려할 수 있어 감사하고

눈물이 많고 잘 우는 성격이기에

스트레스가 그때그때 해소되어 감사하고

지랄맞은 내 성격!

알고보면 그러저러 장점 많은 성격!

장점

정말 자세이 봐야

보인다는 게

함정.....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 납 업 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납 목 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	연락처
신청정보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의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할 [   ]    동의하지 않을 [   ]</div>	
	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할 [   ]    동의하지 않을 [   ]</div>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      (인) 또는 (서명)</div>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div>			

17년 10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문지수	박남주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영훈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민자	정종남	정주영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기술운전사업의 일환으로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를 2017년 11월 17일(금) 오전10시 ~ 오후5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과 평생의 손맛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 아래와 같이 안내아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일 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강북센터 교육실 (수유역 가든타워 1707오)
대 상	서울지역 장애인
접수기간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5시까지
접수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kbcil.co.kr">http://kbcil.co.kr</a>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a href="mailto:kbcil@hanmail.net">kbcil@hanmail.net</a> 및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오) 방문접수 (참가신청서, 복지카드사본)
기타문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02-908-7776 담당자 주영경 010-2832-0836 서울시센터지원사업부 E-mail: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 휴게시간 12:00 ~ 13:00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일경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 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